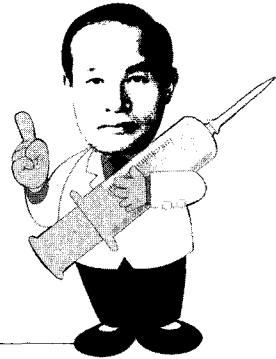


가금위생



오 경 록

남덕에스피에프 대표/이학박사

1. 노계에서의 난각색 퇴색방지

일령증가에 따라 난각색이 옅어지면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저하되고 식탁에서도 꺼리게 되므로 갈색 산란계의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난각색은 중요하다. 무창계사와 개방계사에서는 난각색의 퇴색의 영향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스트레스로 난각색이 퇴색한다는 보고 사례도 있다.

강제환우에서는 일시적으로 난각색의 개선이 보인다. 아이엔현 양계시험장에서는 난각색의 퇴색에 구루신과 구루타민산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검토하였다. 시험에 의하면 구루신, 구루타민산 나트륨을 사료에 0.5% 첨가하면 난각색의 개선이 보였다.

보존방법으로서는 퇴색하지 않도록(4일정도 되면 난각색의 차이가 확실해진다) 광선을 차단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하면 구루타민산 나트륨등을 첨가한 경우에 처음에는 진하지만, 서서히 밝아지기 때문에 금후에는 난각색의 색소의 생성과정물질의 단독급여에서는 일령증가에 따라서 난각색이 퇴색하므로 어떠한 조합물질(푸로토폴피린의 전구물질인 구리산등과 닭의 소화흡수를 개선하는 유기산의 조합등)이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NK, 2004.7)

2. 주정초산에 의한 계사내 살균소독

계란수송용 플라스틱 난좌는 GP 센터와 불특정다수의 양계장 사이에서 수송에 이용되고 있다. 기후현 축산연구소 양계연구부에서는 난좌는 직접 계란에 접촉하기 때문에 소독약이 아닌 것으로 검토하여 식초의 살균효과를 이용하기로 하고, 식초의 일종인 주정초산을 선정하여 계란수송용 플라스틱 난좌의 소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0 의 0.12% 초산농도의 주정초산 용액에 18시간 3회와 4시간 6회, 각 회 난좌 500매씩 침적하고 침적 전후의 세균수를 비교하였다.

시험결과 18시간 3회에서 침적전의 대장균수는 94.5%의 세균이 제거되었다. 4시간 6회에서는 일반 세균수는 94.2% 대장균수는 96%로 세균이 제거되었다. 실험한 침적조건(18시간 3회와 4시간 6회)의 범위내에서는 침적회수, 침적시간의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난좌 매수가 많은 경우에는 4시간의 침적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NK, 2004.7)

3.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강화

농림 수산성에서는 제5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본부회의를 개최하여 강화대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감염경로를 조기 규명한다.

- ① 감염경로 규명팀을 구성하여 6월중에는 최종 결론을 얻도록 검토
- ② 상기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발생 대책의 평가, 검토

2)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역 조치를 확립한다.

- ① 타국가에서의 대규모 발생에 대한 대응사례를 조사하여 일본에서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
- ②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백신의 구체적 사용 방침을 명확하게 정립
- ③ 상기 방침을 토대로 하여 방역 매뉴얼을 재검토하여 개정
- ④ 방역에 관하여 연습 및 연수회 등을 실시한다.
- ⑤ 전문가의 신속한 파견 등 인적지원 체제를 정비

3) 소비자, 생산자, 관계업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 ①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의 작성
- ② 상기 자료 등을 활용하는 소비자, 생산자, 관계업자 등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의 추진 (NK,2004.7)

4. 무절식 강제환우 방법에 의한 환우 후의 산란성적

효고현 축산 기술센터에서는 절식하지 않고 제한 급이하는 방법에 의한 강제환우를 실시하여 환우 후의 산란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강제환우방법으로는 다음의 4가지 처리를 비교하였다.

- 1) 7일절식(F7), 2) 3일절식(F3) 3) 15일간 60g/

일, 수당(C60) 4) 15일간 40g/일, 수당(C40)

03년 1월 28일에 환우처리를 시작하였다.

기온 6.5, 체중 1.5kg, 무산란의 유지열량에 대하여 C60은 100%, C40은 70%를 충족하였다.

점등은 처리 개시와 동시에 정지하고 42일째에 12.5시간에서 점증하여 106일째 이후에는 16시간으로 고정하였다. 물은 자유섭취, 사료는 급이개시 후 자동급이기에 의해 자유 섭취하였다. 체중은 0, 3, 7, 15, 42일째에 산란강도와 하우유니트는 100, 184일째에 측정하였다. 시험군마다 산란개수, 산란중량, 난각 불량란 개수, 폐시수수를 기록하고 196일(28주)째에 시험을 종료하였다. 처리개시시에 대하여 자유급이 재개시 체중의 비율(%)은 F7 : 78.4%, F3 : 88.0%, C60 : 87.0%, C40 : 84.7%이었으나 42일째에는 체중에 처리간 차이는 없었다.

50% 산란회복일수는 F3에서는 54.5일, F7은 60일이었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5~12주째의 난중은 F7가 무거운 경향이였다.

산란량은 F3 또는 C40가 약간 많고, C60은 13주째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산란중의 사료 소비량은 동일한 정도의 경향이였으나 전체 시험기간중에는 F3가 약간 많았다. 난각 불량란 비율은 C40가 낮고 특히 21주째 이후에 낮은 경향이였다.

난각 강도는 100일째에 C40이 강하였으나, 184일째에는 차이가 없었고, 하우 유니트는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유지량의 70%를 15일간 정량급이하는 강제환우방법(C40)은 기존 정식 환우 방법과 같은 정도의 산란성적을 얻었기에 무절식 강제환우 방법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본다.(NK,2004.9)